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의 升陽처방에 대한 번역연구

- 번역 및 『古今名醫方論』과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¹ ·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²
李南九¹ · 金成煥² · 李容範² *

Translational Study on the Prescriptions of Elevating Yanggi[升陽] in the Book II of 『The Golden Mirror of Medicine·The Elimination & Supplement about Famous Prescription Comments(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

- Focused on translation and comparative discussion about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 on Ancient and Modern Times(古今名醫方論)』

Lee Nam-gu¹ · Kim Seung-hwan² · Lee Yong-bum² *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²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The Golden Mirror of Medicine(醫宗金鑑)』 is a very famous medical book. It was compiled by the medical officers of the Cheong(淸, Qing) Dynasty, especially headed by Ogyeom(吳謙, Wuqian). 「The Elimination & Supplement about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刪補名醫方論)」 that forms one part of 『The Golden Mirror of Medicine(醫宗金鑑)』, is a collection of famous notes about important prescriptions. Many parts of 「The Elimination & Supplement about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刪補名醫方論)」 were quoted from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 on Ancient and Modern Times(古今名醫方論)』. The first part of the vol. II of 「The Elimination & Supplement about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刪補名醫方論)」 mainly describes about the prescriptions of elevating Yanggi[升陽], which were invented by Igo(李杲, Ligao), a famous physician of the Geum(金, Jin) Dynasty. The treatments were five and three of them were quoted from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 on Ancient and Modern Times(古今名醫方論)』. The basic rule of herbal combination of these prescriptions is a combination of herbs of strengthening-gi[補氣] and dispersing herbs[發散藥]. If the dispersing herbs[發散藥] is used with the herbs of strengthening-gi[補氣藥], they elevate Yanggi(陽氣) together.

Key Words : The Golden Mirror of Medicine(醫宗金鑑), The Elimination & Supplement about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刪補名醫方論), elevating yanggi(升陽), strengthening-gi(補氣), dispersing herbs(發散藥)

* 교신저자 : 李容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번지,

E-mail : A95005@Gmail.com Tel : 033-730-0668
접수일(2008년 7월 31일), 수정일(2008년 8월 11일),

I. 서론

『醫宗金鑑』은清代 吳謙 등이 편찬한 것으로, 乾隆 17년(1749)부터 淸의 太醫院에서 醫學生의 교과서로 채택되어¹⁾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刪補名醫方論』은 『醫宗金鑑』 卷二十六에서 卷三十三까지인데, 이는 『古今名醫方論』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수정 보충한 것으로 생각된다. 『古今名醫方論』은清代 羅美가 지어 1675년에 간행한 것이고, 『醫宗金鑑』은 1742년에 간행되었다.²⁾

『刪補名醫方論』 卷二의 처음부분은 보중익기탕, 승양익위탕, 승양산화탕, 보비위사음화승양탕, 청서익기탕 등 東垣이 창방한 5개의 升陽처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刪補名醫方論』의 升陽처방 5개에 대한 원문을 번역하고, 『古今名醫方論』의 해당 조문과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약물 배합의 특이점이나 方論의 특징 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醫宗金鑑』 『刪補名醫方論』 卷二의 보중익기탕, 승양익위탕, 승양산화탕, 보비위사음화승양탕, 청서익기탕 등 5개의 升陽처방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번역하고, 『古今名醫方論』의 유관 조문과 그 내용을 비교하여, 【考】의 항에서 다음과 같이 4등급으로 분류하였다.

1) '내용같음' - 『古今名醫方論』의 내용과 같은 경우. 문장 중 일부가 다르고, 문자상에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크게 수정보충된 내용이 없고 내용상에 큰 차이가 없으면, '내용같음'으로 평가하였다.

계재확정일(2008년 8월 14일)

- 1) 홍원식, 윤창렬 편저. 중보 중국의학사. 서울. 일지사. 2001. p. 533.
- 2) 김성환, 이용범.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의 補氣 처방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 2007. 20(1). p. 66.

2) '수정보충' - 『古今名醫方論』과 내용이 거의 같으나, 加減法 方論 등의 기재에 있어서 수정 혹은 보충한 것이 있으면 '수정보충'으로 평가하였다.

3) '내용다름' - 『古今名醫方論』에 인용된 方論을 따르지 않은 경우 '내용다름'으로 평가하였다.

4) '없음' - 『古今名醫方論』에 없는 경우, '없음'으로 평가하였다.

2. 底本

『醫宗金鑑』: 吳謙 等編. 魯兆麟 等 點校.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7.

『古今名醫方論』: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3. 句讀와 해석

句讀는 底本을 따랐으나, 일부 저자의 견해와 다른 부분은 저자의 견해대로 하였다. 해석은 逐字번역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의역을 하였다.

III. 본론

【원문】

補中益氣湯

○治陰虛內熱, 頭痛口渴, 表熱自汗, 不任風寒, 脈洪大, 心煩不安, 四肢困倦, 懶于言語, 無氣以動, 動則氣高而喘. ○黃耆 人參 雲朮 炙甘草 陳皮 當歸 升麻 柴胡 上八味, 加生薑三片, 大棗二枚, 水煎, 溫服.

【集註】 ○柯琴曰: 仲景有建中理中二法. 風木內干中氣, 用甘草飴棗, 培土以禦木³⁾; 薑桂芍藥, 平木而驅風⁴⁾, 故名曰建中. 寒水內凝⁵⁾于中氣, 用參朮甘草, 補

3) 『古今名醫方論』에는 '木'이 '風'으로 되어 있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1.

4) 『古今名醫方論』에는 '平木而驅風'이 '驅風而瀉木'으로 되어 있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土以制水, 佐乾薑而生土以禦寒, 故名曰理中. 至若勞倦形衰, 氣少⁶⁾, 陰虛而生內熱者, 表證頗同外感, 惟李杲⁷⁾知其為勞倦傷脾, 穀氣不勝⁸⁾, 陽氣下陷, 陰中而發熱, 製補中益氣之法. 謂風寒外傷其形, 為有餘; 脾胃內傷其氣, 為不足. 遵『內經』勞者溫之, 損者益之之義, 大忌苦寒之藥, 選用甘溫之品, 升其陽, 以達⁹⁾陽春升生¹⁰⁾之令. 凡脾胃一虛, 肺氣先絕, 故用黃耆護皮毛而閉腠理, 不令自汗. 元氣不足, 懶言氣喘, 人參以補之. 炙甘草之甘, 以瀉心火而除煩, 補脾胃而生氣. 此三味, 除煩熱之聖藥也. 佐白朮以健脾, 當歸以和血. 氣亂于胸, 清濁相干, 用陳皮以理之, 且以散諸甘藥之滯. 胃中清氣下陷¹¹⁾, 用升麻柴胡氣之輕而味之薄者, 引胃氣以上騰, 復其本位, 便能升浮, 以行生長之令矣. 補中之劑, 得發表之品而中自安; 益氣之劑, 賴清氣之品而氣益培, 此用藥有相須之妙¹²⁾. 是方也, 用以補脾, 使地道卑而上行, 亦可以補心肺, 損其肺者, 益其氣, 損其心者, 調其榮衛也. 亦可以補肝木, 鬱則達之也. 惟不宜于腎, 陰虛于下者不宜升, 陽虛于下者更不宜升也¹³⁾. 凡李杲¹⁴⁾治

脾胃方, 俱是益氣¹⁵⁾. 去當歸白朮, 加蒼朮木香, 便是調中; 加麥冬五味輩, 便是清暑. 此正是醫不執方, 亦是醫必有方.

○趙獻可曰: 後天脾土, 非得先天之氣不行¹⁶⁾, 此氣因勞而下陷于太陰¹⁷⁾, 清氣不升, 濁氣不降, 故用升柴以佐參耆, 是方所以補益後天中之先天也¹⁸⁾. 凡脾胃不足¹⁹⁾, 喜甘而惡苦, 喜補而惡攻, 喜溫而惡寒, 喜通而惡滯, 喜升而惡降, 喜燥而惡濕, 此方得之矣²⁰⁾.

○陸麗京²¹⁾曰: 此為清陽下陷者言之, 非為下虛而清陽不升者言之也. 倘人之兩尺虛微者, 或是腎中水竭²²⁾, 或是命門火衰, 若再一升提, 則如大木將搖而撥其本也²³⁾.

【해석】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1.

- 5) 『古今名醫方論』에는 ‘凝’이 ‘凌’으로 되어 있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1.
- 6) 『古今名醫方論』에는 ‘形氣衰少’가 ‘形氣衰少’로 되어 있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1.
- 7) 『古今名醫方論』에는 ‘李杲’가 ‘東垣’으로 되어 있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1.
- 8) 『古今名醫方論』에는 ‘勝’이 ‘盛’으로 되어 있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1.
- 9) 『古今名醫方論』에는 ‘達’이 ‘行’으로 되어 있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1.
- 10) 『古今名醫方論』에는 ‘陽春升生’이 ‘春生’으로 되어 있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1.
- 11) 『古今名醫方論』에는 ‘陷’이 ‘沈’으로 되어 있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1.
- 12) 『古今名醫方論』에는 ‘妙’아래 ‘也’가 더 있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2.
- 13) 『古今名醫方論』에는 ‘也’아래 ‘名論’ 두 글자가 있는데, 이는 羅美의 旁注이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2.

- 14) 『古今名醫方論』에는 ‘李杲’가 ‘東垣’으로 되어 있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2.
- 15) 『古今名醫方論』에는 ‘氣’아래 ‘特眼’ 두 글자가 더 있는데, 이는 羅美의 旁注이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2.
- 16) 『古今名醫方論』에는 ‘行’자 아래에 ‘着眼’ 두 글자가 더 있는데, 이는 羅美의 旁注이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2.
- 17) 『古今名醫方論』에는 ‘太陰’이 ‘腎肝’으로 되어 있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2.
- 18) 『古今名醫方論』에는 ‘也’자 아래에 ‘眉批: 益後天之先天, 後人未發’이 더 있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2.
- 19) 『古今名醫方論』에는 ‘不足’ 두 글자가 없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2.
- 20) 『古今名醫方論』에는 ‘矣’가 없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2.
- 21) 『古今名醫方論』에는 ‘陸’이 ‘路’로 되어 있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2.
- 22) 『古今名醫方論』에는 ‘腎中水竭’이 ‘癸水鎖竭’로 되어 있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2.
- 23) 『古今名醫方論』에는 ‘也’ 아래에 ‘眉批: 此韻柏所謂獨不宜于腎也.’가 더 있다. 또한 ‘周慎齋曰: 下體痿弱, 虛弱者, 不可用補中, 必當以八味丸治之. 凡內傷作瀉, 藏附子于白朮中, 令其守中以止泄也; 表熱, 藏附子于黃芪中, 欲其走表以助陽也.’가 더 있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2.

보중익기탕

○陰虛內熱로, 머리가 아프고(頭痛) 입이 마르며(口渴), 겉에서 열이 나고(表熱) 저절로 땀이 나며(自汗), 風寒을 견디지 못하며, 맥이 홍수 난 것처럼 크며(脈洪大), 가슴이 달아오르면서 불안하며(心煩不安), 팔다리가 피로하여 나태하며(四肢困倦), 말하기 귀찮아하고(懶於言語), 움직일 기운이 없으며(無氣以動), 몸을 움직이면 기가 올라와서 숨이 찬(動則氣高而喘) 등의 증상을 치료한다. ○황기 인삼 백출 구감초 당귀 승마 시호. 이상 8가지에 생강 3쪽 대추 2개를 넣어 물에 달여 따뜻하게 먹는다.

[集註] ○柯琴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장중경은 건중탕과 이중탕의 2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風木이 中氣를 안에서 범한 경우에는 감초와 飴糖(엿)과 대추를 써서, 脾土를 培養하여 木을 방어하고, 생강 육계 작약을 사용하여 平木해서 風을 몰아내었으므로 建中湯이라고 이름 지었다. 寒水가 안에서 中氣에 凝結된 경우에는 인삼 백출 감초를 써서, 脾土를 補하여 水를 방어하고, 건강으로 보좌하여 脾土를 生하여 寒을 방어하였으므로, 理中湯이라고 이름 지었다. 만약 과로(勞倦)로 形이 쇠약해지고, 기운이 없으며 陰이 虛해져서 內가 熱해짐에 이르렀다면, 겉으로 드러난 증상(表證)이 자못 외감병과 비슷한데, 오직 이동원이 그것이 과로(勞倦)로 비를 손상하여, 穀氣가 소화되지 못하고, 陽氣가 아래로 빠져서 陰 가운데에서 발열하는 것임을 알아서 補中益氣의 방법을 만들었다. 생각건대 風寒이 환자의 몸을 바깥에서 손상하면, 有餘한 證이고, 脾胃에서 내부적으로 氣를 손상하면 부족한 證이니, 『內經』의 “피로한 것은 따뜻하게 하고, 결손된 것은 補益한다”²⁴⁾는 뜻을 따라서, 苦寒한 약은 아주 금기시 하고 甘溫한 약을 선택 사용하여, 陽氣를 상승시켜, 봄에 陽氣가 올라가 발생작용을 하는 계절적 명령을 수행하게 한 것이다. 대개 脾胃가 한 번 虛하면 肺氣가 먼저 끊어지므로 황기를 써서 皮毛를 보호하고 腠理(땀구멍)을 닫아서 自汗하지 않도록 하며, 元氣가 부족하여 말하기 귀찮아하고

숨이 가쁘므로 인삼으로 補하며, 炙甘草의 甘味는 心火를 瀉하여 가슴이 달아오르는 것을 제거하고, 脾胃를 補하여 氣를 生한다. 이 세 가지 약은 煩熱을 제거하는 聖藥이다. 백출로 보좌하여 健脾하고 당귀로 和血한다. 氣가 胸에서 어지러워져서 清濁이 서로 침범하므로, 진피를 써서 정리하고 또한 여러 가지 甘味의 약들이 泥滯되는 것을 散한다. 胃中의 清氣가 아래로 빠지므로 氣의 輕하면서 味가 薄한 승마 시호를 사용하여, 胃氣를 上騰시켜서 본래의 위치를 회복시키면, 바로 상승하여 떠올라서 生長작용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補中하는 약제가 發表하는 약제를 얻어서 中氣가 저절로 안정되고, 益氣하는 약제가 清氣하는 약제에 힘입어 氣가 더욱 배양되니, 이것은 藥을 씌에 相須(서로 작용을 도와주는)의 묘한 이치가 있는 것이다. 이 처방은 사용하면 脾를 補하여 地道(水穀의 精微)로 하여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하며, 또한 心肺를 補할 수 있어서, 폐가 손상된 경우 그 氣를 益하고 心이 손상된 경우 榮衛를 調하며, 또 肝木을 補할 수 있어서 울체된 경우 통달하게 할 수 있다. 오직 腎에는 적당하지 않으니 아래에서 陰이 虛한 경우 올라가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아래에서 陽이 虛한 경우에는 올라가게 하는 것이 더욱 적절치 않다. 대개 이동원이 脾胃를 치료하던 방법은 모두 氣를 益하는 것으로. 당귀 백출을 빼고 창출 목향을 넣으면 바로 調中益氣湯이고, 맥문동 오미자를 넣으면 清暑益氣湯이다. 이것이 바로 의사는 처방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반드시 처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趙獻可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後天의 脾土는 先天의 氣를 얻지 못하면 행할 수 없다. 이 (後天의) 氣가 과로하여 아래로 太陰으로 빠져서, 清氣가 올라가지 않고 濁氣가 내려가지 않으므로, 승마 시호를 써서 인삼 황기를 보좌하게 한 것이니, 이 처방이 그 때문에 後天 중의 先天을 補益하게 되는 것이다. 대개 脾胃가 부족하면 甘味를 좋아하고 苦味를 싫어하며, 補하는 것을 좋아하고 攻擊하는 것을 싫어하며, 溫한 것을 좋아하고 寒한 것을 싫어하며, 通하는 것을 좋아하고 滯하는 것을 싫어하며,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고 내려가는 것을 싫어하며, 燥를 좋아하고 濕을 싫어하는데, 이 처방이 그러한 점을 갖추고 있다.”

24) 『素問至真要大論』에는 ‘勞者溫之’, ‘損者溫之’로 되어 있으나, 胡本, 吳本, 藏本, 熊本 등에는 ‘損者益之’로 되어 있다. 郭謙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1124.

○ 陸麗京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方解는 淸陽이 아래로 빠지게 된 경우를 위하여 설명한 것이고, 下가 虛하여 淸陽이 오르지 못하는 경우를 위하여 설명한 것이 아니다. 혹시 환자의 양 尺脈이 虛하고 微하다면, 腎 중의 水가 고갈되었거나, 命門火가 쇠약한 것인데, 만약 거듭해서 한 번 더 升提하면, 마치 큰 나무가 막 흔들거리려는데, 그 밑동을 잡아 뽑는 것과 같은 것이다.

【考】

東垣의 補中益氣湯은 『素問調經論』의 “帝曰: 陰虛生內熱, 奈何? 岐伯曰: 有所勞倦, 形氣衰少, 穀氣不盛, 上焦不行, 下脘不通, 胃氣熱, 熱氣熏胸中, 故內熱.”²⁵⁾에서 근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王履는 陰虛의 陰이 下焦腎水의 陰이 아니라, 몸의 陰氣와 水穀의 味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을 많이 하여 과로하면 元氣가 약해져서 음식물을 잘 먹지 못하게 되고, 위 아래로 升淸降濁의 작용을 못하여, 少火가 上焦와 胃脘에서 鬱滯되어 壯火가 되어 열이 나며, 그 열이 胸中을 썩서 內熱이 발생한다고²⁶⁾ 하였다. 위 본문 중에 나오듯이 補中益氣湯의 주치증은 升淸降濁의 失調로 인한 胸中煩熱이다. 황기 인삼 감초로 益氣하여 除煩하며, 승마 시호로 升淸하였는데, 황기 인삼 감초의 補氣藥에 치중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귀로 和營하였으며, 甘味로 泥滯할 염려가 있어 枳芩로 기운이 멎는 것을 예방하였다.

『古今名醫方論』의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거의 일치한다. 다만 趙獻可의 方論에서 脾土 後天之氣가 太

陰에 빠진다고 하였는데, 『古今名醫方論』에는 太陰이 아닌 腎肝에 빠진다고 하여, 그 의미가 다른데, 그것이 吳謙 등이 의도적으로 바꾼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太陰으로 기재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古今名醫方論』에는 周慎齋의 方論이 더 있는데, 이곳에서는 삭제되었다. - 수정보충

方論 중에 陸麗京은 『古今名醫方論』에는 路麗京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다.

【원문】

升陽益胃湯

○治脾胃虛, 怠惰嗜臥, 四肢不收. 時值秋燥令行, 濕熱²⁷⁾方退, 體重節痛, 口乾舌燥, 飲食無味, 大便不調, 小便頻數, 食不消, 兼見肺病, 洒淅惡寒, 慘慘不樂, 面色不和. ○羌活 獨活 防風 柴胡 人參 白朮 茯苓 甘草 黃耆 白芍 半夏 黃連 澤瀉 陳皮. 水煎服.

【集註】○吳昆²⁸⁾曰: 脾土虛弱, 不能制濕, 故體重節痛; 不能運化精微, 故口乾無味; 中氣既²⁹⁾弱, 傳化失宜, 故大便不調, 小便頻數也. 洒淅惡寒, 肺弱表虛也. 面色不樂, 陽氣不伸也. 是方半夏白朮能燥濕, 茯苓澤瀉滲之, 二活防風柴胡能升舉淸陽之氣, 黃連療濕熱, 陳皮平胃氣, 參耆甘草以益胃, 白芍酸收用以和榮, 而協羌活³⁰⁾柴胡辛散之性, 蓋古人用辛散必用酸收, 所以防其峻³¹⁾厲, 猶兵家之節制也³²⁾.

【按】人參屬補, 不知君子枳朴中, 卽爲補中瀉也. 羌

27) 『古今名醫方論』에는 ‘時值秋燥令行, 濕熱’이 ‘時值濕熱’로 되어 있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27.

28) 『古今名醫方論』에는 ‘吳昆’이 ‘吳鶴阜’로 되어 있다. 아래 예도 이와 같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28.

29) 『古今名醫方論』에는 ‘既’가 ‘卽’으로 되어 있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28.

30) 『古今名醫方論』에는 ‘活’이 ‘方’으로 되어 있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28.

31) 『古今名醫方論』에는 ‘峻’이 ‘峻’으로 되어 있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28.

32) 『古今名醫方論』에는 ‘也’아래에 ‘用藥當知’가 더 있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28.

25)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760.

26) 王履 著. 醫經溯回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p. 76-77. “嗟夫, 此內傷之說之源乎! …… 蓋勞動之過, 則陽和之氣, 皆亢極而化爲火矣, 況水穀之味又少入! 是故陽愈盛而陰愈衰也. 此陰虛之陰, 蓋指身中之陰氣, 與水穀之味耳. 或以下焦陰分爲言, 或以腎水真陰爲言. 皆非也. 夫有所勞倦者, 過動屬火也. 形氣衰少者, 壯火食氣也. 穀氣不盛者, 勞傷元氣, 則少食而氣衰也. 上焦不行者, 淸陽不升也. 下脘不通者, 濁陰不降也. 夫胃受水穀, 故淸陽升而濁陰降, 以傳化出入, 滋營一身也. 今胃不能納, 而穀氣衰少, 則淸無升而濁無降矣, 故曰上焦不行, 下脘不通. 然非謂絕不行不通也. 但比之平常無病時, 則謂之不行不通耳. 上不行, 下不通, 則鬱矣. 鬱則少火皆成壯火, 而胃居上焦下脘兩者之間, 故胃氣熱, 熱則上炎, 故熏胸中而爲內熱也.”

防輩爲散，不知佐于參耆中，卽爲補中升也。近世之醫，一見羌防輩，卽曰：發散不可輕用，亦不審佐于何藥之中，皆因讀書未明，不知造化別有妙理耳。

【해석】

승양의위탕

○脾胃가 虛하여, 게으르고 나태하여 누우려고만 하고(怠惰嗜臥), 四肢가 늘어지는 것(四肢不收)을 치료한다. 시절이 가을의 건조한 계절이 되어, 濕熱은 막 물러가려 하는데, 몸이 무겁고 관절이 아프며, 입과 혀가 마르고(口乾舌燥), 음식이 맛이 없고(飲食無味), 대변이 고르지 못하고(大便不調), 소변을 자주 나오며(小便頻數),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되고(食不消), 겹겹하여 肺가 병들어 섯뽁섯 오한하며, 괴롭고 편치 못하며, 얼굴색이 나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치료한다. ○강활 독활 방풍 시호 인삼 백출 복령 감초 황기 백작 반하 황연 택사 진피. 물에 달여 먹는다.

【集註】○吳崑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脾土가 허약하여 濕을 제압하지 못하므로 몸이 무겁고 관절이 아프며, (水穀의) 精微를 운화하지 못하므로 목이 마르고 음식이 맛이 없으며, 中氣가 이미 약하여져서 傳化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大便이 고르지 못하고 小便이 자주 나온다. 섯뽁섯 오한하는 것은 肺가 약하여 表가 虛한 것이다. 얼굴 색이 나쁘고 편치 못한 것은 陽氣가 퍼지지 않은 것이다. 이 처방에서 반하 백출은 燥濕할 수 있고, 복령 택사는 소변을 잘 나가게 하며, 강활 독활 방풍 시호는 淸陽의 氣를 들어 올릴 수 있고, 황연은 습열을 치료하고, 진피는 胃氣를 고르게 하고, 인삼 황기 감초는 益胃하며, 백작의 酸味의 수렴작용을 써서 和營하면서 강활 시호의 辛味의 散하는 성질을 협조하게 한다. 대개 옛 사람들은 辛味의 散하는 성질을 사용할 때 반드시 酸味의 수렴하는 성질을 함께 쓰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발산하는 약의 작용이 너무 심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것이니, 병법에서 절제하는 것과 같다.”

【按】인삼은 補하는 약에 속하지만, 지실 후박 가운데에 君藥으로 사용하게 되면, 바로 補하는 가운데에 瀉하는 작용을 함을 알지 못하며, 강활 방풍류는 散하는 약이지만, 인삼 황기 가운데에서 보좌하는 약으

로 사용하면, 바로 補하는 가운데에 升하는 작용을 함을 알지 못한다. 요새 의사들이 강활 방풍을 보고 “發散하는 약은 쉽게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떤 약들 가운데에서 보좌하는 약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피지 않는 것이니, 모두 독서함에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造化에 따로 妙理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考】

이 처방의 주안점은 濕에 있다. 반하 백출로 燥濕하고 복령 택사로 滲濕하여 진문적으로 濕을 다루면서 黃連으로 濕熱을 함께 치료하고 있으며, 그 원인인 脾土虛弱을 다스리기 위하여 황기 인삼 감초로 益氣하고 강활 독활 방풍 시호로 淸淸하면서 발산의 치우침을 염려하여 芍藥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이는 이 처방이 앞의 보중익기탕보다 한층 升淸작용이 강함을 의미한다. 즉 이 처방은 보중익기탕보다 脾胃가 더 허약해져 濕이 울체된 데에 사용됨을 알 수 있다.

脾胃虛弱하여 濕이 울체된 證을 치료하는 방제이므로, 계절적으로는 濕이 왕성한 늦 여름에 적절하다고 하였다.

『古今名醫方論』의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내용상의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본문 중의 [按]에 해당하는 내용은 『古今名醫方論』에 없는 것을 吳謙 등이 보충한 것이다. - 수정보충

이 처방에서는 다음 2가지 약의 작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按]에 새로 첨가하였듯이 강활 방풍 등의 발산약을 인삼의 보좌약으로 사용하면, 升陽의 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발산약을 사용할 때에는 그 작용의 지나침을 경계하여 백작약의 酸味로 수렴하는 작용을 겸하여 사용한다는 점이다.

【原文】

升陽散火湯

○治脾陰血虛, 胃陽氣弱, 春寒不去, 及過食冷物, 抑遏少陽淸氣, 鬱于脾土之中, 四肢發困熱, 肌熱, 筋骨間熱, 表熱如火燎于肌膚, 捫之烙手, 并宜服之. ○升麻

葛根 獨活 羌活 白芍 人參已上各五錢 甘草三錢 炙 柴胡三錢
防風二錢 甘草生, 二錢. 右咬咀, 如麻豆大. 每服秤五錢, 水
二盞, 煎一盞, 去滓, 大溫服, 無時, 忌寒涼之物.

【集註】○吳昆曰: 經云: 少火生氣. 天非此火不能生物, 人非此火不能有生, 揚之則光, 遏之則滅. 今爲春寒不去, 遏鬱陽氣, 飲食冷物, 填塞至陰, 以致升生之氣幾于息矣. 故用升麻柴胡羌活獨活葛根, 皆辛溫風藥, 以鼓動少陽生氣. 清陽既出上窺, 則濁陰自歸下窺, 而食物傳化, 自無抑遏之患. 芍藥味酸, 能瀉土中之木. 人參味甘, 能補中州之氣. 生甘草能瀉鬱火于脾, 從而炙之, 則健脾胃而和中矣. 李杲聖于脾胃者, 其治之也, 必主于升陽. 俗醫知降而不知升, 是撲其少火也, 安望其衛生耶! 若氣不虛, 本方除人參獨活加葱白, 名火鬱湯, 治同.

【해석】

승양산화탕

○脾의 陰血이 虛하고 胃의 陽氣가 약한데, 봄에 寒氣가 가시지 않고 찬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 少陽의 淸氣를 억눌러 막아서 脾土 가운데에서 울체되어, 사지에서 困熱(피곤하면서 나는 열)이 나고, 살에서 열이 나며(肌熱), 힘줄과 뼈 사이에서 열이 나며(筋骨間熱), 表에서 열나는 것이 볼로 살을 태우는 듯하며, 만져보면 손을 태울 듯 뜨거운 등의 증상을 치료하니, 이러한 증상에 모두 복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승마 같은 독활 강활 백작 인삼 각 5돈, 자감초 시호 각 3돈, 방풍 생감초 각 2돈. 이 약들을 씹어서 삼씨나 콩(麻豆) 크기로 만들어 한 번에 5돈을 달아서 물 2잔을 1잔 되게 달인다. 찌꺼기를 버리고 아주 따뜻하게 먹는다. 아무 때나 먹되 차가운 음식은 금기한다.

【集註】○吳昆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內經』에 ‘少火는 氣를 生한다.’³³⁾하였는데, 자연계는 이 火가 아니면 만물을 탄생시킬 수 없으며, 사람도 이 火가 아니면 삶이 영위할 수 없으니, 이 火를 드러내면 영 화롭고 이를 막으면 멸망한다. 지금 봄이 되어도 寒氣가 가시지 않아 陽氣를 막아 울체시키고, 찬 음식을 먹어 至陰(脾)을 꼭 채워, 升生(상승하여 발생작용을 하는)하는 氣의 기전이 멈추게 된 것이다. 그러므

로 승마 시호 강활 독활 같은을 사용하였으니, 모두 辛溫한 약성의 風藥으로 少陽의 生氣를 鼓動시킨다. 淸陽이 이미 上竅로 나갔다면, 濁陰은 下竅로 저절로 돌아가서, 먹은 음식물이 傳化하여, 억압받아 울체될 걱정이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작약은 味가 酸하니 土중의 木을 瀉할 수 있고, 인삼은 味가 甘하니 中洲의 氣를 補할 수 있다. 생감초는 脾에 울체된 火를 瀉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炙하면 脾胃를 튼튼하게 하고 中焦를 和한다. 이동원이 脾胃病에 뛰어났던 것은 치료방법에 반드시 陽을 升하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속세의 의사들은 내리는 것만 알고 올리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이는 그 少火를 약화시키는 것이니, 어찌 그 생명을 지키기를 바라겠는가! 만약 氣가 虛하지 않다면, 본 처방에서 인삼 독활을 빼고 蒼朮을 가하여 화올탕이라 이름하니 치료하는 것은 같다.”

【考】

이 처방은 『古今名醫方論』에 없다. -없음

이 처방은 少火가 寒에 억눌려 열로 변화되어 사지 肌表 筋骨에 열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補中益氣湯과 마찬가지로 열이 주증상이지만, 보중익기탕은 胸中煩熱이 주안점이고, 이 처방은 팔다리나 肌表 筋骨의 열이 주안점이다.

상승시키는 약이 승마 같은 시호 강활 독활 방풍 등 6가지나 들어가 있어 앞의 두 처방에 비하여 升提의 작용이 한층 강화된 처방이라 할 수 있으며, 升陽 益氣湯과 마찬가지로 지나친 발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백작약이 들어가 있다. 益氣하는 약은 인삼과 자감초로 이전의 처방과 비교하면 황기가 없다. 그리고 脾의 火를 瀉하는 생감초가 들어가 있다. 전체적으로 益氣의 비중보다는 升陽의 비중이 높은 처방이라 할 수 있다.

鬱의 원인이 寒이므로 계절적으로는 寒이 아직 남아 있는 봄에 적절하며, 또한 찬 음식은 금기한다.

【原文】

補脾胃瀉陰火升陽湯

○治飲食傷胃, 勞倦傷脾, 脾胃一虛, 陽氣下陷, 陰火

33) 『素問陰陽應象大論』에 나옴.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76.

계절적으로는 여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原文】

清暑益氣湯

○長夏濕熱蒸炎, 四肢困倦, 精神減少, 身熱氣高, 煩心便黃, 渴而自汗, 脈虛者, 此方主之. ○人參 黃耆 甘草 白朮 神麴 五味子 青皮 升麻 乾葛 麥冬 黃蘗 澤瀉 廣橘皮 蒼朮^{錢半} 當歸³⁴⁾. 薑三片 棗二枚去核 水煎服³⁵⁾.

【集註】○吳昆曰: 暑令行于夏, 至長夏則兼濕令矣. 此方兼而治之. 炎暑則表氣易泄, 兼濕則中氣不固, 黃耆所以實表, 白朮, 神麴, 甘草所以調中. 酷暑橫流, 肺金受病, 人參, 五味, 麥冬, 所以補肺, 斂肺, 清肺, 『經』所謂扶其所不勝也. 火盛則水衰, 故以黃蘗, 澤瀉, 滋其化原. 津液亡則口渴, 故以當歸, 乾葛, 生其胃液. 清氣不升, 升麻可升; 濁氣不降, 二皮可理. 蒼朮之用, 爲兼長夏之³⁶⁾濕也. ○程應旂曰: 人知清暑, 我兼益氣, 以暑傷氣也. 益氣不獨金能敵火, 凡氣之上騰而爲津爲液者, 回³⁷⁾下卽爲³⁸⁾腎中之水, 水氣足, 火淫自却也.

【해석】

청서익기탕

○長夏에 濕熱이 썩서 무더운데, 四肢가 피로(困倦)하고, 精神이 맑지 못하고(減少), 몸에서 열이 나고, 氣가 올라가며(氣高), 가슴이 달아오르고(煩心),

34) 『古今名醫方論』에는 약의 순서 및 명칭이 人參 黃芪 甘草 白朮 蒼朮一錢五分 神曲 青皮 升麻 乾葛 麥冬 五味 當歸 黃柏 澤瀉 廣皮로 되어 있다. 다른 약의 용량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창출의 용량만 1돈 반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田代華 등은 약의 性味가 燥하여 過量을 쓸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19.

35) 『古今名醫方論』에는 ‘薑三片 棗二枚去核 水煎服’이 ‘水煎溫服’으로 되어 있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19.

36) 『古今名醫方論』에는 ‘之’가 없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19.

37) 『古今名醫方論』에는 ‘回’가 ‘向’으로 되어 있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19.

38) 『古今名醫方論』에는 ‘爲’가 없다.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19.

소변이 누렇고(便黃), 목이 마르면서 저절로 땀이 나고(自汗), 脈이 虛한 것은 이 처방으로 치료한다. ○인삼 황기 감초 백출 신곡 오미자 청피 승마 건갈 맥문동 황백 택사 廣橘皮(광둥지방의 柑橘皮) 창출 1.5돈. 당귀. 생강 3쪽, 대추 2개(씨 제거). 물에 달여 먹는다.

【集註】○吳昆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더위는 夏에 성행하고, 長夏가 되면 濕이 겹하게 되는데, 이 처방은 그것을 겹하여 치료하는 것이다. 무더우면 表의 氣가 쉽게 빠져나가고, 濕을 겹하면 中氣가 튼튼하지 못하게 되니, 때문에 황기로써 表를 實하게 하고, 백출 신곡 감초로써 中焦를 調하는 것이다. 심한 더위가 횡행하면 肺金이 병을 얻기 때문에 인삼 오미자 맥문동으로 補肺, 斂肺, 清肺하는 것이니, 『內經』에서 이른바 ‘이기지 못하는 것을 돕는다’³⁹⁾는 것이다. 火가 盛하면 水가 쇠퇴하므로 黃耆 芍藥으로 그 조화의 근원(腎)을 滋養한다. 진액이 소모되면 口渴하므로 당귀 건갈로 胃液을 생기게 한다. 清氣가 升하지 못하는 것은 升麻가 升하게 할 수 있고, 濁氣가 내려가지 못하는 것은 攄皮 攄皮로 정리할 수 있다. 창출을 쓴 것은 長夏의 濕을 겹하였기 때문이다.”

○程應旂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무더위를 맑힐 劑(淸暑)은 아는데, 내가 益氣를 겸하는 것은, 무더위가 氣를 손상하였기 때문이다. 益氣는 金이 火를 대적할 수 있게 할 뿐만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氣가 위로 올라가서 津과 液이 되었다가, 아래로 돌아 내려가면 바로 腎 中의 水가 되니, 水氣가 충분하면 火의 지나침은 저절로 물러간다.”

【考】

이 처방은 『古今名醫方論』에 나오는데, 내용이 거의 같다. 다만 복용방법에서 『古今名醫方論』에 ‘水煎溫服’으로 간단히 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서는 ‘薑三片 棗二枚去核 水煎服’라 하여 생강 대조를 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내용같음

또한 『古今名醫方論』에는 처방 뒤에 ‘附:暑門諸方

39) 『素問六元正紀大論』에 나온다. 원문에는 ‘扶其所不勝’으로 되어 있다.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964.

論'을 두어 喻嘉言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없다.

이 처방의 주안점은 여름철의 濕熱이다. 여름철의 무더위로 表虛해지므로 황기를 사용하였고, 中焦의 濕을 다스리기 위하여 백출 창출 신곡 감초를 사용하였으며, 肺金受病 때문에 인삼 오미자 맥문동을 사용하였으며, 여름철의 火로 水衰해졌으므로 황백 택사를 사용하였고, 진액이 부족하여 口渴하므로 당귀 건갈을 사용하였고, 升淸하기 위하여 승마를 사용하였고, 降濁하기 위하여 청피 굴피를 사용하였다.

앞의 升陽하는 처방 구성의 기본적인 틀인 補益과 升陽의 측면에서 비교하여 보면, 인삼 황기 감초의 補氣약제와 같은 승마 등 升陽약제 그리고 여기에 中焦의 濕熱을 치료하기 위한 백출 창출 진피 청피 신곡과 오미자 맥문동 등의 斂肺약제, 황백 택사 등의 滋腎약제가 가미되어 있다.

IV. 고찰

1. 약물 배합의 특징

1) 補氣약제와 升陽약제의 배합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에 인용되어 있는 升陽益氣 처방은 보중익기탕, 승양익위탕, 승양산화탕, 보비위강음화승양탕, 청서익기탕 등 모두 5개이다. 이 처방들이 갖는 공통적인 구성의 기본 틀은 인삼 자감초 황기 등의 益氣약제와 승마 시호 등의 升陽약제가 함께 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중익기탕에서는 황기, 인삼, 자감초와 승마, 시호가 사용되었고, 승양익위탕에서는 황기, 인삼, 자감초와 강활, 독활, 방풍, 시호가 사용되었고, 승양산화탕에서는 인삼, 자감초와 승마, 갈근, 시호, 강활, 독활, 방풍이 사용되었고, 보비위강음화승양탕에서는 황기, 인삼, 감초와 강활, 승마, 시호가 사용되었으며, 청서익기탕에서는 황기, 인삼, 자감초와 갈근, 승마가 사용되어 모두 益氣와 升陽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다.

2) 祛濕약제의 배합

脾의 허약에는 『素問·藏氣法時論』에 '脾苦濕'⁴⁰⁾이라 하였듯이 濕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래서 기본 방이라 할 수 있는 보중익기탕에도 백출이 들어 있는데, 濕과 많은 관련이 있는 처방은 승양익위탕과 청서익기탕이라 할 수 있다. 승양익위탕은 치료증상에 體重節痛이 있고 구성약제에도 濕을 제거하는 반하, 백출과 복령, 택사가 있다. 청서익기탕은 濕熱과 관련이 많아 濕을 치료하는 창출, 백출이 있고, 火熱이 성하여 水克火가 잘 되지 않거나 火克金이 과도히 이루어지는 것을 염려하여, 斂肺하는 맥문동, 오미자와 滋腎하는 황백, 택사가 들어가 있다.

3) 瀉火약제의 배합

東垣 升陽처방의 가장 기본적인 주치증은 發熱이다. 다만 發熱의 원인이 外感이 아니고 內傷이므로, 치료약에도 직접 瀉火하는 약제는 신중하게 사용된다. 가령 升陽散火湯에서 생감초가 脾에서 瀉火작용을 하며, 보비위사음화승양탕에서 황련, 황금, 석고 등이 瀉火하는 작용을 하는 외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4) 行氣약제의 배합

인삼, 황기, 자감초 등은 모두 甘하여 泥滯하므로 이를 염려하여 보중익기탕, 승양익위탕에는 진피가 들어가 있고, 청서익기탕에는 진피, 청피가 들어가 있다. 그러나 승양산화탕과 보비위사음화승양탕에는 진피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는 이 처방에서 甘溫 益氣약제의 작용이 비교적 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方論의 특징

승양익위탕의 方論에서 『古今名醫方論』에 추가로 按을 달아 강활, 방풍 등의 發散藥이 인삼, 황기의 보좌약으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補하는 가운데에 升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점은 「刪

40)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316.

補名醫方論』에 수록된 5개 升陽 처방의 공통된 약물 배합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승양익위탕 芩芩의 方論에서는 辛散약제에 酸收약제가 배합되어야 그 작용의 지나침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여 백작약의 사용에 대한 의의를 밝혔는데, 백작약은 승양산화탕에도 사용되고 있다. 승양익위탕에는 강활, 독활, 방풍, 시호 등의 발산약이 사용되었고, 승양산화탕에는 승마, 갈근, 독활, 강활, 시호, 방풍 등의 發散藥이 사용되어, 보중익기탕의 승마와 시호, 보비위사음화승양탕의 강활과 승마, 시호, 청서익기탕의 승마, 건갈 등의 발산약보다 그 가지 수가 많아, 백작약의 수렴작용으로 발산작용의 지나침을 예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중익기탕 柯琴의 方論에서는 진피를 사용하여 甘藥의 滯를 흠어준다고 하였는데, 이는 앞의 약물 배합의 특징 항목에서 이미 언급하 바와 같다.

이와 같이 『刪補名醫方論』 升陽처방의 方論에서는 補氣藥과 發散藥, 發散藥과 收斂藥, 補氣藥과 行氣藥 등의 陰陽 조화를 이루는 내용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3. 『古今名醫方論』 升陽처방과의 비교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의 升陽처방 5개 중에서 『古今名醫方論』에 나오는 처방은 보중익기탕, 승양익위탕, 청서익기탕 등 3개이고, 승양산화탕과 보비위사음화승양탕은 나오지 않는다.

『古今名醫方論』에서는 이들 3개 처방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떨어져 수록되어 있으나⁴¹⁾ 『刪補名醫方論』에서는 권2의 앞부분에 모아져 정리됨으로써, 升陽처방의 특징적인 면들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古今名醫方論』에 나오는 3개 처방의 내용과 『刪補名醫方論』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내용같음’은 하나이고, 두 개는 ‘수정보충’이다. 『刪補名醫方論』의 보중익기탕 方論에서는 周慎齋의 방론이 삭제되어 있고, 승양익위탕 方論에는 인삼 등의 補氣藥에 發散藥을 배합하면 升陽작용을 한다는 按이 첨가되어 있

으며, ‘수정보충’으로 평가되었고, 淸暑益氣湯은 복용법에서 ‘薑三片 棗二枚去核 水煎服’의 내용만 첨가되어 있어 ‘내용같음’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刪補名醫方論』의 升陽처방 부분이 『古今名醫方論』을 근간으로 하여 만들어졌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수정 보충하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편제를 바꾸어 이루어진 것임을 의미한다.

V. 결 론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에 나오는 升陽처방 5개에 대하여 번역하고 『古今名醫方論』의 유관 내용과 비교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刪補名醫方論』에 나오는 升陽처방 5개 중에서 보중익기탕, 승양익위탕, 청서익기탕 등 3개는 『古今名醫方論』에 수록되어 있으나, 승양산화탕, 보비위사음화승양탕 등 2개는 『古今名醫方論』에 없다.
2. 『古今名醫方論』에 수록된 升陽처방 3개는 한 곳에 정리되지 못하고 散在하고 있으나, 『刪補名醫方論』에 수록된 升陽처방 5개는 한 군데 함께 정리되어 升陽처방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다.
3. 『刪補名醫方論』의 升陽처방은 『古今名醫方論』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수정 보충하여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고 있다.
4. 약물배합에 있어서 모든 升陽처방은 補氣藥과 發散藥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으며, 승양익위탕과 청서익기탕은 祛濕藥이 배합되어 있고, 승양산화탕과 보비위사음화승양탕은 瀉火藥이 배합되어 있다.
5. 方論에 있어서는 補氣藥과 發散藥, 發散藥과 收斂藥, 補氣藥과 行氣藥의 陰陽 조화에 대한 내용이 많다.

41)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1, 18, 27.

참고문헌

「논문」

1. 김성환, 이용범.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의 補氣 처방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7. 20(1). p. 66.

「단행본」

1. 홍원식, 윤창렬 편저. 증보 중국의학사. 서울. 일지사. 2001. p. 533.
2. 羅美 著. 田代華, 田麗莉, 高峰 點校. 古今名醫方論.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0. p. 1, 2, 18, 19, 27, 28.
3.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 76, 316, 760, 964, 1124.
4. 王履 著. 醫經溯回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p. 76-77.